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9, No. 110, pp.203-239
<https://doi.org/10.29212/mh.2019..110.6>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조선전기 동북아의 정세와 전쟁

김경록*

1. 머리말
2. 원명교체와 조선의 건국
3. 국제질서의 유지와 분열
4. 명 중심 국제질서의 임진전쟁
5. 맺음말

1. 머리말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국가에 있어 전쟁과 평화는 상반되면서 동시에 매우 긴밀하게 연관된 개념이다. 조선의 경우, 고려말 정치, 사회, 경제적 혼란을 역사적 유산으로 물려받아 1392년 개국되었다. 건국초기 조선은 국내의 정치, 군사적 복잡한 관련성 못지않게 원명교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직면하여 내부의 혼란을 수습하면서 대외적으로 명 중심 국제질서에서 조선의 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치열한 국방정책을 시행했다.

* 군사편찬연구소 군사사부 선임연구원

일반적으로 평화시기는 국왕을 중심으로 한 지배층의 장기적인 국방정책을 시행할 수 있지만, 건국과 내우외란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면 국가의 국방정책과 외교정책은 상호 긴밀하게 연관되어 변화를 거듭하게 된다. 이러한 국가의 군사관련 정책이 변화되고 수정되는 과정은 전쟁과 밀접하게 연관되었다. 전쟁은 국가의 안위를 좌우하는 중대사였기에 국가는 총력을 동원하여 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방지가 어려워 전쟁이 발생하면 반드시 승리하고자 노력했다.²⁾

조선전기 국제정세는 조선이 경험한 전쟁과 연관되었다. 원명교체의 국제질서 재편과정으로 명 중심 국제질서가 형성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요동의 복원세력, 초원지대의 몽골세력, 한반도 북부의 여진족, 전국시대의 혼란으로 인한 왜구의 준동 등이 발생했다. 이들 동북아 여러 국가와 세력은 명과의 관계, 조선과의 관계 속에서 상호간 치열하게 충돌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로 조선은 국방정책의 수립·변화를 경험하고, 여진정벌, 대마도정벌, 삼포왜란, 니탕개의 난, 임진전쟁 등 대외전쟁을 치렀다.

조선전기 역사전개에서 전쟁이 가지는 의미가 높았기 때문에 여말선초에서 임진전쟁, 병자호란에 이르는 시기동안 조선이 직면한 전쟁관련 연구는 방대하게 축적되어 전쟁의 개략적인 모습을 이해 하도록 했다. 그러나 전쟁중심으로 서술된 연구성과는 대체적으로 대규모 전쟁 중심으로 주요전투, 참전병력, 승패에 따른 결과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전쟁의 주체인 국가간의 정세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전쟁의 원인, 과정, 결과를 정리한 경우는 임진전쟁과 같은 대규모 전쟁에 한정된다.³⁾

2) 전쟁은 물론 내부적인 반란이나 민란 등을 戰亂이라 하여 포함할 수 있지만, 본 글에서는 대외적인 적대국과의 전쟁으로 한정하여 살펴본다.

3) 이형석, 『임진전란사』(상·중·하), 임진전란사간행위원회, 197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임진왜란사』, 1987; 최영희 외, 『임진왜란의 재조명』, 군사편찬위원회, 1992;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정두희, 이경순 엮음, 『임진왜란과 동아시아』, 2005.

기존 연구는 대체적으로 여말선초 왜구, 대마도정벌, 여진정벌, 삼포왜란, 임진전쟁 등을 중점 조망하였다. 물론 이들 전쟁이 조선의 전쟁관련 역사에서 중요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과연 개별 전쟁들이 어떠한 시대상황에서 발생하였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한다. 이들 전쟁들의 서술에 있어 일본, 여진 등의 개략적인 시대상황을 설명하며 전쟁 배경이라 하지만, 단편적인 설명이라 판단된다. 전쟁은 장기 지속적인 국제정세가 복잡하게 연관되어 발생하여 전쟁 당사국뿐만 아니라 주변국가의 흥망에 큰 영향을 주었다.

조선은 건국과 함께 명 중심 국제질서에 편입되어 국가의 안위를 확보하기 위해 명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명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정세변화는 조선의 전쟁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비록 직접적인 군사 충돌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조선의 국방정책 및 국방체제의 변화를 추동하기도 했다. 이에 조선건국에서 임진전쟁까지 조선은 대내외적으로 전쟁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비하였으며, 수행하였는가를 살펴봄에 조선의 전쟁역량, 전쟁대비 등과 함께 국제질서, 국제정세, 황제국으로 명의 통제력이 어떻게 연관되었는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조선전기 국제정세의 변화를 개관하고, 국제정세 변화와 명의 통제력이 가지는 상관관계를 정리함으로써 조선이 직면하게 되는 국제정세와 전쟁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정리의 대상시기는 여말선초에서 임진전쟁까지이며, 기존 연구성과를 전적으로 참조하되 상대적으로 연구관심이 많지 않은 국제, 국내정세 변화 및 전쟁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보다 세부적인 국방체제 및 국방정책의 관련성에 대한 정리작업은 차후 연구과제로 기약한다.

2. 원명교체와 조선의 건국

전근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에 대한 기존 연구는 중국적 세계질서가 고전적인 형태로 중화세계를 형성하고 주변 국가들과 조공체제를 맺어 발전했다는 견해⁴⁾와 교역을 중심으로 국제무역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견해가 있다.⁵⁾ 최근에는 이를 수정하여 조공체제로 설명하기에 부족한 측면을 보완한 견해가 제기되기도 했다.⁶⁾ 전근대 동아시아 역사를 조공체제로 설명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며, 시대별로 유력 국가를 중심으로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국가간 관계를 조공체도에 의해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본 필자는 중국 중심 국제질서(예를 들면, 원 중심 국제질서, 명 중심 국제질서, 청 중심 국제질서 등)로 설정하였다.⁷⁾

국제질서는 다양한 국가들 간의 충돌과 화합으로 변화되지만, 무엇보다 중심 국가의 국제정세에 대한 통제력 및 영향력의 범주에

4) Fairbank, J. K. "A Preliminary Framework." Fairbank(ed.) *The Chinese World Order*.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Walker, Hugh D. "The Yi-Ming Rapprochement: Sino-Korean Foreign Relations, 1392-1592" Ph.D.diss.,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1971; 黃枝連, 『天朝禮治體系研究』(上·中·下),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2; 王正毅, 『世界體系論與中國』 商務印書館, 2000; 李雲泉, 『明清朝貢制度研究』 暨南大學博士學位論文, 2003.

5) 濱下武志, 『近代中國の國際的契機: 朝貢貿易システムと近代アヅア』 東京大學出版部, 1990; 『朝貢システムと近代アヅア』 岩波書店, 1997; 荒野泰典, 『近世日本と東アジア』, 東京大出版會, 1988; 高橋公明, 「朝鮮外交秩序と東アジア海域の交流」, 『歴史學研究』573, 1987.

6) 김영진, 「전통 동아시아 국제질서 개념으로서 조공체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정치외교사논총』38, 2016; 최희재, 「중화제국질서를 둘러싼 논의의 확산과 수렴 - 조공체제론과 다중체제설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65, 2018; 윤영인, 「전근대 동아시아 천하체제와 조공체제」, 『동양문화연구』29, 2018.

7) 김경록, 「명대 공문체도와 행이체계」, 『명청사연구』26, 2006; 「공민왕대 국제정세와 대외관계의 전개양상」, 『역사와 현실』64, 2007; 「조선시대 국제질서와 조명관계」, 『세계 속의 한국사』, 태학사, 2009; 「조선시대 국제질서와 한중관계의 전개양상」, 『중국학보』60, 2009; 「여말선초 홍무제의 고려조선인식과 외교관계」, 『명청사연구』35, 2011; 「조선시대 국제질서와 해양정책」, 『명청사연구』48, 2017.

의해 안정 및 동요가 일어나고 최종단계에 새로운 국제질서로 전환되기도 한다. 조선의 건국은 원 중심 국제질서에서 명 중심 국제질서로 전환되는 전환기에 이루어져 조선이 직면하는 전쟁은 중심국가의 통제력 여부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원명교체의 전환은 이미 고려말 시작되었다.

전대미문의 대제국을 건설하였던 몽골의 몰락은 동북아시아 국제정세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 몽골지배체제의 다양한 모순점으로 유발된 내부적인 반발은 민족적 대립과 연관되어 이어졌다. 몽골의 몰락은 고려말 恭愍王代에 이미 표출되어 고려의 정치, 군사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대륙에서 빈발하는 반란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원에 대해 반원 세력들이 화남, 강남지역 등을 근거지로 성장하였다. 강력한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공민왕은 원 중심의 국제질서를 인정하면서 개혁정치를 추진하였다.

국제정세의 변화를 면밀하게 살펴본 공민왕은 원 중심 국제질서를 인정했다. 왕권강화 및 중앙집권적 개혁정책을 추진하고(공민왕 즉위~공민왕 9년), 원의 통치체계가 붕괴되자 명 중심 국제질서를 인정하고 고려의 안정적 통치를 추구하였으며(공민왕 10년~공민왕 16년), 명 중심 국제질서하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하였던 북원세력을 외교카드로 활용하여 요동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공민왕 17년~공민왕 23년)하기도 했다.⁸⁾

공민왕대 중원대륙의 정세변화는 고려에 흥건적의 침입이란 북방의 대규모 전쟁을 가져와 고려국왕이 피난하는 큰 피해를 가져왔다.⁹⁾ 여전히 원 중심 국제질서에 속한 고려의 입장에서 흥건적의

8) 김경록, 「공민왕대 국제정세와 대외관계의 전개양상」, 『역사와 현실』64, 2007. 참조.

9) 金正義, 「흥건적의 침입에 관한 고찰」, 『군사』17, 1988; 이경희, 「고려말 흥건적의 침입과 안동임시수도의 대응」, 『역사와경계』24, 1993; 김경록, 「공민왕대 국제정세와 대외관계의 전개양상」, 『역사와현실』64, 2007; 閔賢九, 「高麗 恭愍王代 중엽의 정치적 변동」, 『진단학보』107, 2009; 이익주, 「14세기 후반 고려-원 관계의 연구」, 『동북아역사논총』53, 2016; 홍영의, 「이방실 장군의 생애와 군사활동」, 『군사』103, 2017; 박진훈, 「고려후기 흥건적의 침입과 安祐의 군사활동」, 『사학연

침입은 분명한 외침으로 고려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대응하였으며, 원의 명분적인 지원을 받았다. 즉, 원 중심 국제질서에서 공동의 적이었던 홍건적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과 격퇴는 고려의 입장에서 고려의 명운을 건 전쟁이면서, 여원관계에서 유리한 전쟁이었다.

고려 우왕대 국제정세는 명의 공세적인 대몽골정책 추진과 요동 經略 추진으로 고려와 명 사이에 갈등상황이 초래되었다. 요동의 나하추가 투항하여 북원세력이 소멸되자 홍무제는 본격적으로 요동통치를 강화하고 여진족에 대한 회유정책을 추진했다. 우왕대 고려와 신홍 명의 관계는 긴장과 갈등의 연속이었다. 고려는 적극적으로 명 중심 국제질서에 편입되는 길을 선택하고, 여명관계를 원활하게 맺음으로써 대외적인 위협을 상쇄시키고자 했다.¹⁰⁾

조선의 건국과 동시에 고려의 군제를 개편하여 국방력을 확립하고자 했다. 우선 都摠中外諸軍事府를 혁파하고 義興親軍衛를 설치하고, 뒤이어 三軍摠制府를 고쳐 義興三軍府로 고치고, 重房을 폐지하였다.¹¹⁾ 이는 고려의 남겨진 세력이 참여할 수 있는 군제를 건국 주도세력 중심으로 개편한 것이다. 조선 건국초기 국방개혁은 군제 개편, 사병혁파, 방어체제(관방론)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정치세력의 개편과 연관되어 점진적으로 왕권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국가의 국방력은 전근대에는 무엇보다 병력의 숫자와 훈련정도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를 잘 인식하였기 때문에 조선의 건국과 동시에 개혁을 주도했던 정도전은 사병혁파를 우선시했다. 건국직후 정치, 군사세력투쟁이 벌어져 사병혁파를 왕실세력의 축소로 인식하였던 왕자를 비롯한 세력은 반대하였다. 이후 왕자의 난 이후 권력을 장악한 이방원은 1400년 4월 오히려 자신이 나서 사병혁파를

구]130, 2018; 이정란, 「1361년 홍건적의 침입과 공민왕의 충청지역 피난정치」, 『지방사와 지방문화』21-1, 2018.

10) 김경록, 「명대 符驗제도와 한중관계에서 符驗의 의미 -홍무연간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49, 2018.

11) 『조선태조실록』권1, 태조 1년 7월 정유; 권4, 태조 2년 9월 병진.

추진하여 완성했다.¹²⁾ 즉, 권력투쟁 과정에서 자신의 세력약화를 염려하여 일시적으로 사병혁파에 반대할 수 있지만, 국가의 군대로 확립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지배층이 동일하게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관제개혁에서 사병혁파를 명시한 것은 법제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사병의 보유가 왕조국가에서 불법이자 국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한 것이었다. 당시 臺省에서 올린 交章에 의하면 사병혁파는 관제개혁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지만, 핵심은 병권을 국왕에게 일원적으로 통속시키는데 있음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조선의 군사지휘체계를 바로잡고, 향후 발생하는 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병권은 나누어 통솔할 수 없으며, 또한 편중되어 일부가 專掌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누어 통속이 없으면 그 (지휘의) 위엄이 나누어지고 편중되어 혼자 전장하면 그 권세가 (그에게) 옮겨지니 위엄이 나누어지고 권세가 옮겨지면 난을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국방력으로서 군권은 국왕을 정점으로 일원적으로 지휘되어야 하며, 자칫 군권을 가진 인물이나 세력은 반란을 일으키게 된다는 논리였다. 평시에 국왕을 정점으로 군사지휘권을 체계화함으로써 전시에 발생하는 전시지휘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다.

조선이 건국된 다음 해 1393년에 파악된 조선의 군사력은 軍役者 200,800명, 有役者가 100,500명이었다. 이는 각 도에서 작성된 군적에 이름을 올린 병력이었다. 군역자는 마병·보병·騎船軍 등 군인으로 종사하는 병력이며, 유역자는 자제·鄉吏·驛吏 등 군사관련 역을 부담하는 인원이었다.¹³⁾

명 중심 국제질서가 어느 정도 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의 정세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는 왜구의 준동이었다. 여말선

12) 『조선정종실록』 권4, 정종 2년 4월 신축.

13) 『조선태조실록』 권3, 태조 2년 5월 경오.

초의 가장 지속적으로 전국규모의 병란을 일으킨 왜구는 조선의 전쟁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실제 조선의 영토를 벗어나 대외정벌을 조선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시행할 수 있을 만큼 명 중심 국제질서에서 왜구는 공통의 문제였다. 고려말 정벌을 제외하고도 조선은 두 차례 정벌을 통해 왜구침입의 위험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1396년(태조 5) 12월 조선은 金士衡을 五道兵馬都統處置使로 삼아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여 일기도와 대마도를 정벌하도록 했다. 정벌군 파견의 근거였던 敎書를 통해 조선이 당시 인식하고 있던 전쟁관을 살펴볼 수 있다. 교서에서 태조는 동양사회에서 국왕이 국내 외에서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치하는데 힘써야 한다는 진리에 따라 건국초기 전쟁으로 백성들이 동요할까 싶어 최대한 전쟁을 자제하고자 하였음을 밝혔다. 그러나 왜구의 침입이 많아져 신생국 조선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여 조선의 전체 군사력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왜구의 소굴 일기도와 대마도를 정벌한다고 천명했다. 건국초기 조선의 군사지휘체계와 국방력이 정립되지 못한 시점에 대규모 정벌군을 파견한다는 점은 조선의 지배층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왜구의 침입으로 인한 조선의 피해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불가피하였음과 전쟁의 원인이 왜구에게 있음을 거듭 밝힌 것이다. 또한, 태조는 정벌군의 지휘관에게 지휘체계를 엄정히 하고 정벌임무를 완수하여 정벌군이 재출정하는 부담이 없도록 지시했다.¹⁴⁾

14) 『조선태조실록』권10, 태조 5년 12월 정해. “自古王者, 常以撫綏中外爲務. 不幸而有鼠竊狗偷之虞, 則專責方伯, 以驅逐擒制之, 至於其勢昌熾, 方伯不能制禦, 然後命大臣出征, 若召虎之征淮夷, 吉甫之伐玁狁是已. 予自卽位以來, 凡用兵之道, 一遵古昔, 未嘗輕舉, 恐致斯民之擾動也. 今蕞爾島夷, 敢肆猖狂, 侵我邊鄙, 至於再四, 已遣將師, 出而禦之. 然非大興師旅, 水陸相迫, 一舉而殄滅之, 則邊境無時得息矣. 卿衣冠胄族, 廊廟宏才, 稟氣森嚴, 立志弘毅, 揆度庶政, 咸當於理, 薦進人材, 允適其宜, 明足以識虛實, 智足以制寇亂. 是用命爲諸道兵馬都統處置使, 授以節鉞, 佐以同列, 廣置僚寮, 以重其威, 庶幾諸將, 俯伏以聽命, 盜賊聞風而破膽. 卿其坐運籌策, 指示將師, 謀無再舉, 以圖萬全, 以副予懷. 其有將師之失律, 守令之稽緩, 法所當懲, 無問大小, 便卽處決”.

조선은 각 도의 병마도절제사를 혁파하고 각 진에 첨절제사를 두어 부근 州의 병마를 지휘하여 방어하도록 하고, 도관찰사가 첨절제사의 업무를 고과하도록 하였다. 이때 첨절제사가 설치된 진은 경상도에 合浦·江州·寧海·東萊, 전라도에 木浦·兆陽·沃溝·興德, 충청도에 蓴城·藍浦·伊山, 풍해도에 豊州·襄津, 강원도에 三陟·杆城 등이었다.¹⁵⁾

1399년 1월 조선은 태조말 일기도, 대마도 정벌을 통해 왜구의 침입이 줄어들자 일반 수군역의 어려움을 줄여 민심을 안정시키고자 동북면·강원도의 선군을 혁파하고, 경기도·경상도·충청도·전라도·풍해도·서북면의 선군을 줄였다. 지역별로 수군을 혁파하거나 줄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군력의 공백을 만회하기 위해 수군력을 요해처에 배치하고, 봉화를 통해 통신망을 확보하고자 하였다.¹⁶⁾ 조선의 정세변화에 따른 군사인식도 변화됨은 수군력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수군력을 줄였던 조선은 같은 해 9월에 왜구 침입의 우려가 높아지자 각 도의 기선군을 다시 설치했다.

한편, 조선은 원 중심 국제질서에서 명 중심 국제질서로 전환된 국제환경에서 북방의 여진족이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대여진전쟁을 수행하였다. 여진족은 원 중심 국제질서에서 요양행성 통치하에서 거주하다 원명교체기에 독자적인 세력화를 거쳤으며, 뒤이어 명의 요동경략으로 변화의 시대를 맞이했다. 홍무제는 1387년(홍무 20)에 나하추가 항복하자 요동 북서부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大寧城에 大寧都指揮使司 설치하였다. 나하추의 투항으로 명의 요동경략은 일대 전환점을 가졌는데, 요동에서 명에 대항할 거대세력이 사라진 점과 요동과 요서를 연결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요동경략을 전개할 수 있었다. 홍무제는 1389년(홍무 22)에 몽고인의 귀화를 통제하기 위해 太寧, 朵顏, 福餘 三衛指揮使司를 兀良哈에

15) 『조선태조실록』 권11, 태조 6년 5월 임신.

16) 『조선정종실록』 권1, 정종 1년 3월 갑신.

설치하였다. 이들 우량하이(兀良哈) 삼위가 1420년대 이후 세력을 확대하면서 여진족은 상대적으로 밀려 남하하였다.

요동과 동북아시아의 정세변화로 조선의 국경에 거주하는 여진족은 북쪽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남쪽으로 조선의 적극적인 여진정책에 직면하자 조선과 수시로 무력충돌을 일으켰다. 조선은 외부의 침입으로 인한 군사적 위협상황이 지속되면 자연스럽게 내부적으로 정치대립이 반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1402년(태종 2) 11월, 안변부사 趙思義가 태종의 집권에 반발하여 반란을 일으켰는데, 반란군은 여진세력과 연계되어 조선 중앙정부를 위협하기도 했다. 조사의의 반란이 일어난 해, 조선은 여진뿐만 아니라 동북아정세를 뒤흔든 거대한 사건에 직면했다.

동북아의 정세가 조선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사례가 靖難之役의 발생과 漫散軍의 조선 유입이었다. 燕王의 군대가 황제의 군대와 본격적인 전투를 전개하기 전에 배후에 위치한 遼王과 寧王은 최대 위협세력이었다. 연왕은 배후의 요왕과 영왕을 격퇴시킨 뒤, 본격적으로 남하하였지만, 건문제에 통치하는 황제의 군사력에 비해 열세에 있었다. 정난지역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요동전역은 전쟁터가 되었으며, 전란을 피해 도망하는 명군이 조선으로 유입되었다. 1402년 4월, 林八刺失里가 3천여 호를 거느리고 조선으로 넘어왔다. 1399년 6월에 연왕이 기병한 뒤, 3년간을 치열하게 공방하던 전쟁은 결국 연왕군이 1402년 6월, 남경을 점령함으로써 종료되었다.

조선은 정난지역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 중원에서 전쟁이 조선에 유입되어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건문제의 요구에 소극적인 자세로 말을 보냄으로써 연왕군과 적대관계를 맺지 않고자 하였다. 전쟁 중 유입된 만산군을 삼남지방에 분배하여 거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중원에서 전황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영락제가 등극하여 만산군을 효유하자 조선은 만산군의 송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¹⁷⁾ 조선은 명과 말교역 및 군인송환이란 군사외

교를 통해 새로 등장한 영락제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중원을 전란으로 몰아갔던 정난지역의 풍파에 조선이 개입되는 것을 방지했다.

몽골의 강압적인 통치 및 지배층의 이완된 도덕관념에서 기인한 통치모순이 노출되자 원말 사회혼란 및 국제정세의 변동이 일어났다. 원말 사회모순을 개혁하고 황제 중심의 일원적인 통치질서 및 명 중심 국제질서를 건설하고자 하였던 명 홍무제는 예제의 정비, 법제의 정립, 종교제도 마련, 군사개혁, 통일전쟁 및 몽골전쟁을 수행했다.¹⁸⁾ 홍무제는 복원에 대한 정벌을 통해 마련된 명의 영토와 국제사회를 안정화하기 위해 원대에 부재했던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예제에 근거한 세밀한 조공제도를 정비했다.¹⁹⁾ 또한, 홍무말기에 전쟁보다 회유와 외교로 주변 세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점진적으로 동북아시아는 명 중심 국제질서에서 안정화되었다. 이에 조선은 건국이후 원명교체의 대륙정세변화, 요동과 여진족에 대한 영향력을 두고 명과의 긴장관계, 왜구의 준동 및 대마도정벌, 정난지역과 만산군 등의 국제정세와 관련된 전쟁을 경험하거나 방비함으로써 건국과 수성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

3. 국제질서의 유지와 분열

조선전기 동북아시아 국제정세는 명 중심 국제질서의 변화를 통

-
- 17) 김경록, 「조선초기 귀화정책과 조명관계」, 『역사와 현실』83, 2012; 「조선초기 군인송환문제와 조명간 군사외교」, 『군사』83, 2012.
- 18) 김경록, 「명대 공문제도와 행이체계」, 『명청사연구』26, 2006; 「명초 홍무제의 국가통치 구상과 대명물」, 『법사학연구』53, 2016; 「명초 홍무제의 군사인식과 군사정책」, 『군사』99, 2016; 「명초 홍무제의 종교정책과 통치구상」, 『명청사연구』46, 2016; 「홍무연간 명의 봉전 정비와 조명관계」, 『중국사연구』106, 2017.
- 19) 김경록, 「여말선초 홍무제의 고려·조선 인식과 외교관계」, 『명청사연구』35, 2011; 「홍무제의 대외인식과 조공제도의 정비」, 『명청사연구』37, 2012

해 확인할 수 있다. 명 태조 홍무제이후 영락제를 거쳐 홍희, 선덕 연간까지 명은 최대의 번성기를 누렸다. 그러나 이후 정통제의 치세부터 정덕제의 치세까지 명은 시대발전의 동력을 상실하고 내부적 정체의 시대로 평가할 수 있다. 정통연간에서 정덕연간 80여 년간의 정치적으로 아둔한 황제가 연속으로 즉위하였으며, 권력은 환관이 장악하고, 황제의 총애를 받는 이들의 천단이 일상화되어 행정체계의 부정부패가 만연했다.

경제적으로 지주에 의한 토지집중이 가중되고 유민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등 사회갈등의 모순이 격화되었다. 군사적으로 변방의 외침이 빈번하고, 내부적으로 농민과 소수민족의 봉기가 일어나 군사위협이 증대되었다. 1436년(정통 1)부터 15세기 말까지 군사적 측면에서 정체와 약화의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²⁰⁾ 명 건국이후 70여년의 경과하면서 명의 군사력은 점차 변화되었다. 그 변화의 최고 결정권자이자 원인제공자는 영종 正統帝였다. 37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한 선덕제를 이어 9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한 인물이 정통제 朱祁鎮이다.²¹⁾

정통제는 즉위초반 三楊(楊榮, 楊士奇, 楊溥) 등 선덕연간의 내각 대학사와 誠孝昭皇后 張氏의 지도와 보좌를 받아 황제의 역량을 키웠다. 그러나 정통연간의 불행은 내부와 외부에서 서서히 다가왔다. 내부적으로 선덕연간에 설립된 內書堂 출신의 환관 王振이 정통제와 사제관계를 맺으면서 명대 환관정치의 극적인 장면이 나타났으며, 외부적으로 영락제의 정복전쟁 결과 회유책으로 마시형태의 교역을 허가하면서 점차 세력을 키웠던 몽골부족 가운데 야선이 지도하는 오이라트가 흥기하여 명 변방을 침략하기 시작했다.

중국역사에서 환관에 의해 초래된 정치혼란은 수도 없이 많다.

20) 李龍潛, 「明正統年間葉宗留鄧茂七起義的經過及特點」, 『歷史教學』1957-3; 陳濟時, 「明代正統一天啓年間主要農民起義圖」, 『歷史教學』1981-5; 董玉瑛, 「明正統末景泰初女眞的動亂」, 『史學集刊』1983-4.

21) 中國軍事科學院, 『中國軍事通史』第15卷-明代軍事史, 軍事科學出版社, 1998.

명나라는 정치와 군사적 능력을 인정받은 鄭和와 달리 명대 환관정치를 열었던 王振, 이후 汪直·劉瑾·馮保·魏忠賢·王承恩 등이 있다.²²⁾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을 패망으로 몰아간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자 명대 정치체계의 특징으로 내각정치와 함께 거론되는 환관정치를 실제 열었던 인물이 왕진이다. 명대 환관이 이전 시대의 환관과 가장 큰 차이점은 철저히 황제에게 예속된 존재로서 환관이란 점이다. 그러기에 앞에서 언급된 인물들은 개인적인 치부와 권력 남용을 하였더라도 황제의 의지에 의해 일시에 제거되기도 했다. 즉, 명이란 국가에서 황제에게 기생하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더라도 황제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주지 못하는데, 왕진은 황제가 적의 포로가 되도록 하고 폐위되는 전대미문의 결과를 초래시킨 인물이었다.

한편, 황제에게 절대적으로 예속된 존재로서 환관은 나름의 황제에 대한 충성심으로 명 정국운영에 순기능을 하기도 했다. 물론 후대의 평가가 분분하기는 하지만, 고력사, 풍보, 왕승은 등은 해당 시기에 정치에서 나름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환관의 정치적 역할은 이미 환관의 전횡을 엄금했던 홍무제마저 주변국에 사신으로 그 국가출신의 환관을 활용한 환관외교를 시행하기도 한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²³⁾ 환관의 정치 간여를 엄금하였던 홍무연간을 지나, 영락제의 등극과정에 환관의 지대한 공로는 환관에 대한 인식과 대우를 변화시켰다. 왕진 이전까지의 변화는 이전의 비루한 인식과 대우가 그나마 나아졌다는 수준이라면 왕진 이후는 환관에 의한 정치라는 말이 적당할 수준으로 변화되었다. 그 변화의 정점에 왕진이 존재했다.

스스로 자진하여 환관이 된 왕진은 영특하고 학문적 소양도 있어 선덕연간에 동궁을 모시는 역할이 주어졌다. 정통제가 등극한 뒤 신

22) 전순동, 「명조 전기 환관 세력의 추이와 기능」, 『중국사연구』61, 2009.

23) 孫衛國, 「論明初的宦官外交」, 『南開學報』1994-2; 임상훈, 「홍무제, 명대 환관 외교의 창시자 - 홍무제의 환관 억제와 그 실제」, 『동양사학연구』129, 2014.

임을 받은 왕진은 환관의 최고관직인 司禮監의 秉筆太監이 되었다. 이후 왕진은 정통제의 신임을 바탕으로 절대권력을 행사하여 내각 조차도 왕진에게 영합할 정도였다.²⁴⁾

환관의 권력이 강하더라도 군국의 사무는 예외였는데, 왕진은 몽골 오이라트부의 지도자 也先과의 교역에 이익을 보고자하여 1449년 야선의 침입을 초래했다.²⁵⁾ 자신의 사적 이익추구에서 비롯된 외부의 침입을 자신이 직접 진압하여 무공을 세우고자 했다. 자신이 정벌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황제의 친정이 필요하였기에 왕진은 정통제를 부추겨 친정에 나서도록 했다. 결국 군사지휘능력이 전무한 정통제와 왕진의 명군은 土木堡에서 야선에 의해 포위되고 정통제가 포로가 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한다.²⁶⁾

토목보의 변은 명대 정치사에서 태상황제의 존재라는 아주 비정상적인 현실을 초래했다. 정상적인 황위계승은 선황제의 사망과 새로운 황제의 등극으로 이어지며, 一代에 一年號를 지향하였던 명대 황제권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통제가 토목보의 변으로 야선에게 사로잡히자, 처음 황태후는 황제의 장자 朱見深을 황태자로 세울 것을 명하고 郕王 朱祁鈺이 황태자를 대신하여 국정을 총괄케 했다. 당시 조정의 논의가 국난의 시기에 장성한 황제를 세우도록 건의하자 황태후는 태감 金英을 보내 성왕의 황제 등극을 명했다. 이에 성왕이 景泰帝로 등극하고 비록 포로가 되었지만, 생존한 정통제를 태상황으로 높였다. 황제의 권력이란 측면에서 현재의 황제에 미치지 못하지만, 태상황의 존재는 명 제국에 두 명의 황제가 존재함으로 의미한다. 태상황이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복벽의 가능성이 있어 현재의 황제권력에 최대 위협요소가 되었다. 정통제의 정치·군사적 의미가 없음을 확인한 야선은 정통제를 명에 송환시켜

24) 『명영종실록』권137, 정통 11년 정월 경진.

25) 南快莫德格, 「论瓦剌蒙古与西域社會」, 『中国民族学类核心期刊』2005-2.

26) 中國軍事通史編委會, 『中國軍事通史15-明代軍事史 上冊』, 軍事科學出版社, 1995. 399~408쪽.

황제국가 명의 분열을 발생시키고자 했다.²⁷⁾

야선의 의도와 같이 귀환된 정통제는 경태제로 부터 태상황으로 받아들여지지만 迎接儀節만 봐도 경태제에게 정통제가 가지는 부담감을 확인할 수 있다. 정통제의 영접은 매우 간단하여 정통제가 북경에 도착하자 安定門 밖에 어가가 준비되고, 어가가 東安門으로 들어오자 경태제가 맞이하여 절하고, 정통제가 답례한 뒤 南宮으로 들어가자 백관이 알현하고 물러갔다. 이후 실제 정통제는 유폐되어 만수성결과 원단에 백관의 하례가 허락되지 않았다. 태상황의 귀환은 경태제의 위기감을 고조시켜 안정적인 황위계승을 위해 기존의 태자 주견심을 폐위시켜 沂王으로 삼고 자신의 아들 朱見濟를 황태자로 봉책하였으며, 정통제의 심복이었던 태감 阮浪 등을 죽였다. 1453년(경태 4) 황태자 주견제가 사망하자²⁸⁾ 예부 儀制司 낭중 章綸, 감찰어사 鍾同 등이 다시 태자를 세우자고 청하니 모두 의금위 옥에 가두어 杖刑에 처하였으며,²⁹⁾ 남궁의 南城 가운데 큰 나무를 잘라 버리자 정통제는 목숨의 위협을 절감했다. 경태제가 와병 중에 전격적으로 石亨, 徐有貞 등이 정통제를 맞아 복위시켰다.³⁰⁾

토목보의 변과 뒤이어 발생한 야선의 北京포위는 명의 정치, 군사에 큰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에 군사적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홍무제~영락제까지 명은 여진족을 회유하여 명의 기미위소로 편입시켰는데, 여진족의 편입은 여진족의 군사력을 명의 대외정책에서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명은 여진위소를 확보함으로써 몽골세력을 견제하고자 했다. 우량하이 3위가 비록 명에 복속되었지만, 마시를 비롯한 이익관계의 충돌로 명의 위소체계에서 벗어나게 되고, 오이라트의 세력확대에 의해 야선의 세력권에 편입되었다.

27) 華實, 「“土木之變”與土木堡」, 『文史知識』1983-2.

28) 『명영종실록』권235, 경태 4년 11월 신미.

29) 『명영종실록』권241, 경태 5년 5월 갑자.

30) 『二十二史劄記』卷13, 太上皇帝.

우량하이 3위는 남쪽의 여진위소를 압박하자 여진위소는 조선의 북방지역으로 옮겨와 군사분쟁을 유발했다.

황위계승권과 관련된 정치상황은 극단적인 정치사건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6대 황제로 환관에게 정치를 일임하였던 정통제가 몽골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결정하고, 친정하는 도중에 몽골군의 포로가 되자 명의 관리들은 정통제를 볼모로 명에 과도한 정치·외교적으로 공세를 강화할 것을 염려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황태후의 승인을 받아 경태제를 옹립하여 위기의 명조를 안정화시켰다. 뒤에 몽골의 손에서 풀려 나와 명으로 인도된 정통제는 황성에 연금되었다. 한 국가에 두 명의 전·현임 황제가 존재하는 상황은 이를 중심으로 정치세력화하려는 관리들에 의해 분열되어 상호간에 치열하게 충돌했다. 황성에 연금된 지 7년 만에 정통제를 합법적인 황제로 복원시키려는 세력에 의한 반란이 성공하자 정통제는 자신의 복위가 천명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지난 날 경태제를 옹립했던 이들을 철저히 숙청했다.

한편, 명은 국가재정의 확충을 위해 홍무연간에 浙江의 溫州, 處州, 福建의 浦城 등지에 銀鑛을 개발하고, 매년 채광된 은을 징수했다.³¹⁾ 이후 점차 納銀량이 증가되자 채광하는 백성이 도망하여 납은량을 맞추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한편, 은광개발은 명의 경제 발달과 연관되어 유민들이 은광지역에 몰려 개간하기도 했다.

1436년(세종 18, 정통 1) 선덕제를 계승한 정통제가 즉위하면서 점진적으로 환관정치가 시작되자 명은 정치의 부패와 과도한 탐학으로 인하여 지방에서 대규모의 반란이 일어났다.³²⁾ 특히, 명대 대규모 반란의 본격적인 시작은 환관정치로 인해 부패의 만연과 밀접

31) 『명태조실록』권178, 홍무 19년 6월 기축; 권206, 23년 12월 무자; 『명선종실록』권12, 홍희 원년 12월 무자.

32) 何鹏毓, 「明正統年間東南地區的農民大起義」, 『新史學通訊』1951-10; 李龍潛, 「明正統年間廣東黃肖養的起義」, 『理論與實踐』1959-11; 鄭鎮峰, 「明正統年間“三征麓川”之役」, 『歷史教學』1963-8; 萬泳延, 「明代麓川治理問題研究」, 中央民族大學博士學位論文, 2013.

하게 연관되었다. 정통연간에 葉宗留와 鄧茂七의 반란, 성화연간에 劉通·李原의 반란이 일어나고, 정덕연간에는 劉六·楊虎의 반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 가운데 정통연간 농민반란은 주로 절강 處州를 중심으로 葉宗留, 陶得二 등이 주동하여 贛, 閩 지방뿐만 아니라 복건, 절강, 강서 등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었으며, 이들 반란군은 관군을 공격하고, 城邑을 공략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와 잠적하는 등 지방통치에 큰 충격을 주었다. 명 건국이후 80여 년이 지난 뒤 황제의 통치에 저항하는 조직적인 투쟁의 성격이 있었다.³³⁾

섭종유는 慶元의 빈한한 집안 출신으로 流民을 모아 산에 들어가 採鑛하였다. 명은 국가에서 공적으로 운영하는 은광이의 사사로운 채광을 금지하였다. 1442년(정통 7) 浙閩山區에서 採銀하던 섭종유는 관리를 살해하는 사건을 일으키고, 1444년(정통 9) 7월에 경원에서 鑛工을 선동하였다. 다음 해 12월에 섭종유는 은산의 채광을 청원하나 허가받지 못하자 본격적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명 조정에서 은광개발에 집중하고, 납은량을 증가시키자 광공들의 불만이 높았기 때문에 섭종유의 반란군은 수천명으로 늘어나고, 1448년(정통 13) 정월에 建陽을 점령하자 많은 농민이 참가하여 반란군은 만명으로 늘어났다.

섭종유는 복건에서 반란을 일으킨 등무칠과 연계하여 공동작전으로 두 길로 진공했다. 은광의 鑛徒를 중심으로 한 유민폭동이었던 섭종유의 반란에 영향을 받아 복건에서 佃戶를 중심으로 한 등무칠의 농민반란이 일어나 호응하자 정통제의 명은 큰 혼란에 빠졌다. 기존에 군사분쟁은 주로 서북쪽을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체계화된 농민반란이 동남지방에서 일어난 점에 대해 명은 충격을 받게 되었다.

섭종유와 등무칠의 반란군은 한편으로 명의 주요 은광채굴지였던 복건의 浦城을 공격하고, 한 부대는 車盤嶺을 공격했다. 사태가 위급해지자 정통제는 右僉都御史 張楷를 파견하였지만, 반란에 대한

33) 陈玉彬, 「明朝中期(1442年-1450年)的处州农民起义」, 『丽水师专学报』1982-1. 71쪽.

소탕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1448년(정통 13) 11월에 정통제는 寧陽侯陳懋, 保定伯 梁瑤, 平江伯 陳豫, 都督僉事 范雄, 董興, 刑部尙書 金濂 등으로 하여금 在京의 神機五軍 및 浙江都司와 江西都司의 군대를 통솔하여 출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태감 吉祥·王瑾을 提督으로 임명하여 神機營의 銃砲를 동원하여 반란을 소탕하도록 했다.³⁴⁾ 증원군의 투입으로 겨우 섭종유의 반란은 진압되었다.³⁵⁾ 섭종유의 반란은 다른 반란과 달리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등무철의 반란군과 연계된 점에서 반란의 성격이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시대문제에 의해 발생하고, 동일한 문제로 발생한 다른 반란과 연계될 수 있다는 중대성을 잘 보여준다.³⁶⁾

이와 같이 조선 세종대의 대륙정세는 격동의 연속이었다. 마시를 매개로 한 몽골과 명의 충돌과 갈등, 명의 확장적 대외정책에서 소극적 변방방어로의 전환, 명의 환관정치로 인한 반란의 빈발, 명 변방 군대의 이탈과 몽골의 침입, 몽골 내부 타타르와 오이라트의 세력다툼, 오이라트에 의한 세력 확장으로 남하하는 여진족, 왜구의 준동과 명의 해금정책, 여진족에 대한 조선과 명의 대단위 정벌전쟁, 전대미문의 토목보의 변과 명의 군사정책 변화 등 군사·정치·경제적 충격이 조선에 전해지자 조선은 외교·군사에 큰 변화를 경험했다.

조선 세종대 강력한 왜구근절의 의지는 대마도 정벌로 나타났다. 대마도정벌은 조선의 전쟁인식을 잘 보여주는데, 최소한의 전쟁 수요를 통해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고 전쟁관련 체제를 평시체제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즉, 여말선초 최대의 외부로부터 군사적 위협이었던 왜구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대규모 정벌을 단행할 정도로 전쟁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 때의 전쟁도 최소한 기간과 전쟁동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봤다. 이는 대규모 정벌군의 편성에서 대마도의 투항의사를 받고 바로 회군하여 해산한 점에서

34) 『명영종실록』권172, 정통 13년 11월 병술.

35) 李龍潛, 「明正統年間葉宗留鄧茂七起義的經過及特點」, 『歷史教學』1957-3. 11쪽.

36) 于貴信, 「關於葉宗留鄧茂七起義的幾個問題」, 『史學集刊』1956-1. 60~61쪽.

확인할 수 있다.

국제정세의 변화는 핵심적으로 명의 통제력 약화로 인한 몽골세력의 흥기와 여진족의 남하로 정리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륙정세는 명의 소극적인 대외정책 결과로 몽골의 흥기가 결국 토목보의 변이란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되었으며, 명은 건국 이후 처음으로 수도 북경이 포위되는 위기를 맞았다. 직접적으로 토목보의 변은 조선에 전달되었으며, 조선은 몽골군의 조선 침입을 염려하여 방어력을 강화했다.

몽골의 흥기는 이미 요동지역에서 몽골의 남하, 여진족의 조선국 경유역 유입으로 나타났다. 조선시대 조·여진관계에서 발생하는 전쟁은 기존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었다.³⁷⁾ 세종대 여진정벌은 북방개척이란 명분으로 진행되었지만, 적극적인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정벌이 아닌 국경의 안정을 위한 수성목적의 토벌이었다. 조선은 건국 이후 북방으로 침입하는 외부세력은 중원의 명은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여진족, 몽골 등을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몽골이 조선에 침입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식했지만, 토목보의 변은 몽골침입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조선은 북방의 여진족이 실제 침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문제는 조선이 인식한 여진족은 조선의 국방을 위협하는 존재

37) 강성문, 「朝鮮시대 女眞征伐에 관한 연구」, 『軍史』18,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1989; 정해은, 『한국전통병서의 이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민덕기, 「임진왜란기 조선의 북방 여진족에 대한 위기의식과 대응책-‘南倭北虜’란 측면에서」, 『한일관계사연구』34, 2009; 김구진, 「조선시대 女眞에 대한 정책」, 『白山學報』88, 2010; 한성주, 『조선전기 수직여진인 연구』, 경인문화사, 2011, 156쪽; 정다함, 「征伐이라는 戰爭/征伐이라는 祭祀-世宗代己亥年“東征”과 婆猪江“野人征伐”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52, 2013; 정해은, 「16세기 동아시아 속의 조선과 <國朝征討錄>의 편찬」, 『장서각』29, 2013; 장정수, 「선조대 對女眞 방어전략의 변화 과정과 의미」, 『조선시대사학보』67, 2013; 「16세기 말~17세기 초 朝鮮과 建州女眞의 배후 교섭과 申忠-의 역할」, 『한국인물사연구』25, 2016; 「선조대 말 여진 변호 로툰(老土)의 건주여진 귀부와 조선의 대응」, 『조선시대사학보』78, 2016; 한성주, 『조선시대 변호 연구』, 경인문화사, 2018.

라기 보다는 변방에서 소요를 일으키는 부족 정도로 인식했다. 이는 우호적인 여진족을 藩籬, 藩湖로 삼아 보다 북방의 여진족과의 군사충돌을 방지하는 완충세력으로 삼았던 점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변방의 소요 정도가 높으면 조선이 토벌을 통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인식한 점에서도 확인된다. 세종~성종대까지 조선과 여진과의 군사충돌 및 조선의 대여진정책은 강력한 해외원정의 개념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조선이 최대한 전쟁을 억제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한 토벌개념의 전쟁이라 할 것이다.

조선전기의 중간시기였던 명 중기 명은 환관정치에 폐단이 노출되고, 황제의 혼탁함이 겹쳐지면서 내부적으로 통치질서가 문란해졌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착취에 시달리던 하층민의 반란이 전국적인 규모로 일어나 군사적 위기를 초래했다. 이를 수습하지 못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대외 교역을 통해 무마하던 몽골에 대한 통제가 부재하자 토목보의 변화 같은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졌다. 명은 토목보의 변이후 군사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불안하지만 명 중심 국제질서에서 통제력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를 반영하여 조선의 입장에서 북쪽의 여진족이 몽골의 영향력으로 남하하면서 변방을 침입하였지만, 여진정벌을 통해 제압할 수 있었다. 반면에 명의 해금정책으로 해역에서 활동하는 일본과 왜구에 대한 통제력이 부재하자 조선 연안에 삼포왜란과 같은 지역단위 전쟁이 벌어졌다. 조선은 명 중심 국제질서 속에서 조명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며, 여진정벌과 회유, 삼포왜란의 진압 등으로 전쟁을 억제하였다.

4. 명 중심 국제질서의 해체와 임진전쟁

동아시아 국제정세는 명과 주변국의 관계에 의해 상호 유기적으

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되었다. 홍무제는 북원을 비롯한 주변 세력에 대한 명의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군사충돌 및 회유 정책을 펼쳤으며, 그 결과 계서적인 명 중심 국제질서 속에서 국제정세는 나름 안정화되었다. 홍무, 영락연간이 경과한 뒤 명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몽골, 여진, 일본 등의 흥기에 따른 급격한 정세변화는 극단적인 형태로 대규모 전쟁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정덕, 가정, 만력으로 이어지는 명말에 명 중심 국제질서가 해체되어 가는 과정이었으며, 명의 국제정세에 대한 통제력은 무력함을 노출했다.

명 중심 국제질서가 역할론을 수행하지 못하고 점진적으로 해체되는 과정은 명 후기에 접어들면서였다. 명 무종의 폭정을 극복하고 황제 중심의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재확립해야 할 시대적 사명을 한 몸에 부여받고 즉위한 명 嘉靖帝는 부분적인 정덕연간의 폐단을 개선하는 수준에서 개혁을 진행하였다. 이후 명대 최대 예제문제였던 大禮儀사건을 일으켜 지식인관료집단의 실망을 초래하였다.

가정연간 국제정세는 명의 국제질서에 대한 영향력이 무너지고, 다양한 세력들이 동아시아 국제사회에서 충돌하였다. 알탄칸(俺答汗)이 몽골세력을 통합하여 명을 정치·군사·경제적으로 압박하자 명이 군사력을 서북쪽에 집중하였음에도 국제분쟁이 지속되었다. 명 가정연간이었던 1550년 몽골 투모터(土默特, Tūmòtè)부락의 알탄칸(阿勒坦汗, Altan Khan)이 명에서 신하를 칭하고 조공할 것을 요구하며, 통상교역을 거절하자 이에 반발하여 10만 병력으로 명조를 침입한 사건이 발생했다. 북경을 포위하여 가정제가 급하게 근왕을 변진에 요구할 정도로 위기상황을 초래한 몽골의 침입을 “庚戌之變”, “庚戌虜變”, “庚戌之亂” 등으로 부른다.³⁸⁾ 경술의 변은 명조

38) 许宏芝, 「土木之变与庚戌之变实质初探」, 『雁北师范学院学报』2003-4; 刘能成, 「“土木之变”前明朝北方边防考略」, 『贵阳金筑大学学报』2005-1. 1550년 6월, 몽골 알탄 칸이 대동을 공격하자 대동총병 仇鸞은 몽골군의 진격방향을 북쪽으로 유도했다. 몽골군은 고북구를 통과하여 북경성을 포위하고 주변을 약탈했다. 당시 4만 명의 경군이 존재했지만, 노약자의 비중이 높은 등 전투력이 현저하게 낮아 수성이 어려웠다. 이에 가정제는 긴급하게 藩鎮에 勤王의 조서를 내렸다. 6월말

의 부패한 통치와 지배층의 무능을 노출한 군사상황으로 국제정세에 명의 군사적 통제력이 부재함을 잘 보여준다.

토목보의 변을 경험한 명은 京軍을 강화하여 일정하게 군사력을 강화라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홍치, 정덕연간을 경과하면서 군사력은 또다시 급격하게 저하되었다.³⁹⁾ 특히, 명대 군제의 핵심편제였던 衛所의 군대가 점차 軍戶에서 民戶로 전환되면서 군사적 기능을 유지하지 못했다.⁴⁰⁾ 군사력 저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국가재정의 고갈로 인한 군직을 매관하는 경향이었던 것이다. 가정제의 치세 중 반기였던 이 시기 명은 과도한 토목공사와 재정낭비로 捐納이 성행하여 군직을 매관하여 재정을 보충하고, 군비를 조달하였다.⁴¹⁾

경술의 변으로 국가위기를 맞이한 명은 군사체제의 핵심사항으로 북경방어를 강화한 방어체계를 갖추었다. 중앙의 12團營을 3大營으로 고치고, 戎政府로 삼는다.⁴²⁾ 또한, 북경의 방어시설로 외성을 보수하고,⁴³⁾ 薊遼總督을 두어 薊州·保定·遼東 3진을 통할하도록

大同·保定·延綏·河間·宣府·山西·遼陽 등 변진의 군대가 북경에 5만 명이 상 집결했지만, 군량조달 등의 문제로 여전히 전투력이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몽골군을 몰아내지 못했다. 무엇보다 수보였던 嚴嵩의 소극적인 대응과 협상수용 주장이 제기되어 명군의 군사활동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최종적으로 배상금, 통공무역 허용 등 알찬 간의 요구조건을 수용하여 몽골군이 포위를 해제하고 물러나면서 상황은 종료되었다.

39) 孟修, 「土木之變新論」, 『黑龍江教育學院學報』2009-7; 連少亮, 「論明代順天府民兵的組織與職能」, 『首都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0.

40) 楊晨宇, 「明中後期的衛所“民化”」, 『三峽論壇(三峽文學, 理論版)』2014-1. 세부적으로 명 전기 주요 군사제도였던 위소가 명 중후기에 접어들면서 급격하게 군사력이 저하되었는데, 營兵制, 募兵制가 확대된 측면이 주요 원인이었다. 또한, 위소의 내부기능에 있어 토지, 인구 등이 점차 민간사회에 의해 운영되면서 위소 전반의 분위기도 민화되었다.

41) 서인범, 「명 중기 捐納入監에 대하여」, 『역사학보』185, 2005; 「명대 嘉靖年間의 재정조달과 연납제」, 『명청사연구』35, 2011; 「明天啓年間의 陵工과 殿工 재원조달」, 『동양사학연구』125, 2013; 「명 말 崇禎年間의 재정과 군비 조달 : 加派와 捐納 등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44, 2015; 「명 萬曆年間의 재정 위기와 捐納 시행」, 『역사학보』230, 2016. 연납제와 명말 재정위기상황에 대해서는 서인범의 연구가 참고된다.

42) 『명세종실록』권389, 가정 31년 9월 21일(경자).

43) 『명세종실록』권496, 가정 40년 5월 23일(임오).

함으로써⁴⁴⁾ 이후 임진전쟁까지 명 최대 군사지휘권이 주어졌다.⁴⁵⁾ 일례로 兵部右侍郎이었던 宋應昌은 1592년 8월 18일에 欽差經略遼薊保定山東等處防海禦倭軍務兵部右侍郎으로 임명되었는데, 이때 保定, 薊州, 遼東, 산동 등지에 주둔하며, 일본을 방어하는 事宜를 경략하도록 명을 받았다.⁴⁶⁾ 뿐만 아니라 산동·산서·하남의 병력을 계절별로 북경에 집결시켜 북경방어를 강화했다. 이러한 북경방어 중심의 군사력 운용은 상대적으로 변방 및 남방의 군사충돌에 대한 대응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명초 영락연간의 적극적인 원정을 통한 군사정책과 달리 이후 명은 명 제국의 영역을 방어하는 성격으로 전환되면서 요동에 長城을 구축했다. 이후 명의 요동정책은 요동의 방어선을 중심으로 소극적인 대외군사정책으로 일관했다. 이 상황에서 북쪽의 몽골, 한반도 북쪽의 여진족의 세력확장이 있었다. 경술의 변이후 명은 보다 강화된 방어정책의 일환으로 장성을 축성하였다. 이때 동쪽의 산해관에서 서쪽의 산서 황하변까지 장성을 축조하고 9번 변진체제를 완성했다.

장대한 길이의 명대 장성을 구축한 명은 河套戰爭이후 陝西三邊總督을, 北京東部防禦의 薊遼保定總督을, 京師西部防禦의 宣大山西三邊總督을 九邊長城總督으로 운영했다.⁴⁷⁾ 뿐만 아니라 명은 왜구토벌에 큰 전공을 세운 복건총독 戚繼光을 계진총독으로 임명하여 북방세력에 대한 대응에 투입하고, 양광총독 譚綸과 같은 군사지휘관을 통해 방어력 강화에 치중했다.

44) 『명세종실록』권370, 가정 30년 2월 7일(을축). 1551년 巡按直隸御史 趙紳이 건의하여 居庸關, 黃花鎮이 북경으로 들어오는 요충지이므로 별도로 都御史를 두어 방어를 강화하고, 渤海에서 황화진, 거용관에 이르기까지 防守를 위해 參將 2명을 두어 통솔하되 薊遼總督이 이를 통괄하도록 했다.

45) 경술의 변이후 북경방어를 위한 계주, 보정, 요동의 일원적인 통솔체계는 지속되어 임진전쟁시 과건되는 명군의 최고지휘관인 경략의 경우, 송응창이 欽差經略遼薊保定山東等處防海禦倭軍務兵部右侍郎이란 직명을 받은 점에서 확인된다.

46) 『明神宗實錄』卷251, 萬曆 20年 8月 18日(乙巳).

47) 趙現海, 『明代九邊長城軍鎮史』, 中國社會科學院青年學者文庫 歷史考古研究系列, 2012.

이와 같은 명의 방어적 군사정책은 몽골, 여진족 등 주변 세력의 확장을 가져왔으며, 몽골은 지속적으로 서북쪽에서 교역과 군사충돌을 거듭하고, 여진족은 요동 동쪽에서 자체적인 세력확대 및 통합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북부까지 세력을 확대한 여진족은 조선의 변경을 침입하여 조선과 충돌했다.

한편, 가정연간에 절정을 이루었던 왜구의 준동은 국제정세에 대한 명의 통제력 부재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왜구는 국제정세와 연동되어 일어나는 현상으로 14세기 몽골제국의 동요와 붕괴로 일본에 대한 통제가 부재하자 왜구가 동아시아 사회에 출몰하여 세력을 확장했다는 견해이다.⁴⁸⁾ 명 중심 국제질서를 확립하고자 하였던 명은 홍무·영락연간에 적극적으로 대일정책을 펼쳐 왜구의 준동을 방지하고자 했다. 그 결과로 영락이후 왜구의 준동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반면에 명말에 해당되는 정덕연간에 들어서면서 왜구는 조선뿐만 아니라 명 동남 해안에 출몰하여 심지어 내륙깊이 세력을 확장하기도 했다.⁴⁹⁾

왜구는 동아시아 국제사회에서 해역이란 공간을 통해 동아시아 각국의 정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해상세력이었다.⁵⁰⁾ 가정연간에 최고조에 달한 왜구의 침입에 대해 명은 물론 적극적인 대응을 취했지만, 몽골과 같은 북방의 침입과 달리 지역단위 준동으로 인식하고 국가적인 대응보다 지역병력을 동원한 대응으로 임했다.⁵¹⁾ 이는 왜구의 침입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주요 군사지휘관과 병력을 북방으로 이동시킨 점에서 확인되며, 일본에 대한 적극적인 통

48) 이영, 「전환기의 동아시아 사회와 왜구 - 경인년 이후의 왜구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123, 2003;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왜구」, 『한일관계사연구』36, 2010.

49) 윤성익, 「정통연간의 왜구와 대마도 - 왜구 발생구조에 대한 일고찰」, 『한일관계사연구』43, 2012.

50) 윤성익, 『명대 왜구의 연구』, 경인문화사, 2007.

51) 최준식, 「홍무-가정 연간 명-일본의 해상무역과 왜구의 활동 - 동아시아해역에서 왜구의 성격에 대한 재검토」, 『복원사림』32, 2014.

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임진전쟁의 발발이란 결과를 초래했다.

일반적으로 16세기 명의 국제정세를 북로남왜라 분석하는데, 이때 북로의 가장 대표적인 전쟁이 경술지변이었다. 명은 명 중심 국제질서에서 토목보의 변 이후 또 다시 황제국으로서의 위상에 손상을 입고 국제정세에 직접적인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었다.⁵²⁾ 그 결과로 지속적으로 침입과 수비를 거듭한 몽골과의 전쟁상황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동쪽 요동지역에서 점차 성장하는 만주족의 흥기에 대해 속수무책이었다. 여진족의 한 족속이었던 니탕개의 조선침입은 이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며, 이후 여진족을 통합한 누르하치가 만주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七大恨을 명분으로 대명전쟁을 일으켜 명칭교체의 격랑으로 국제정세가 흐르게 된다.⁵³⁾

한편, 조선은 건국이후 지속적으로 북방지역에 대한 통제에 전념했다. 대륙의 정세변화에 따라 여진족이 유동적으로 움직임을 보이면 이에 대한 征伐과 같은 군사대응과 회유를 비롯한 유화적인 대응을 거듭했다. 세종대 4군 6진을 개척함으로써 여진족을 藩籬와 藩湖로 포용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두만강과 압록강의 변방을 지키고자 했다. 특히, 두만강 유역의 6진에 藩籬를 구축함으로써 조선과 여진 사이에 평화지역을 만들었다.⁵⁴⁾ 조선 중기에 이르러 藩籬를 조선에서 藩湖로 부르면서 조선의 변방을 방어하고 안정화시키는 지역으로 인식하였으며, 여진족은 조선의 경제적 우대와 같은 적극적인 정책과 농경화를 통한 부락의 집중화가 진행되면서 발전하기도 했다.⁵⁵⁾

태조대에서 성종대에 이르기까지 북방 변호는 조선과 여진족의 관계사 측면에서 어느 정도 역사가 밝혀져 있지만, 16세기 변호는

52) 张真源, 「嘉靖隆庆时期明蒙关系研究」, 黑龙江大学硕士学位论文, 2012.

53) 滕绍箴, 「试论明与后金战争的原因及其性质」, 『民族研究』1980-5; 哈恩忠, 霍华, 「后金“告天七大恨”榜文」, 『历史档案』2012-2.

54) 한성주, 『조선시대 변호 연구』, 경인문화사, 2018. 46~63쪽.

55) 한성주, 위 책, 경인문화사, 2018. 85~111쪽.

분명 조선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충돌과 화해가 거듭되었을 것임에도 현재 학계에서 니탕개의 난 이전까지 별다른 연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15세기 연구도 동북아시아의 정세변화라는 큰 관점보다는 조선과 여진족의 관계라는 제한된 관점에 집중되어 진행되는 한계가 있다. 16세기의 경우, 물론 사료의 부족이 큰 원인일 수 있지만, 역사연구가 주요 사건 중심으로 전개되는 경향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크게 부각되는 사건이 니탕개의 난, 누르하치의 흥기, 후금의 건국, 명·후금의 전쟁 등에 제한되어 정작 7~80년의 시간은 건너뛰어 세조·성종대 여진정벌에서 100여 년을 뛰어 니탕개의 난으로 이어진다.

과연 이 시간동안 조선은 군사적으로 국제정세 및 여진족과 문제가 없었을까? 분명 그렇지 않을 것이다. 먼저 명은 正統연간에서 正德연간에 이르기까지 昏君이 연이어 등장하여 宦官이 정치를 장악하여 환관정치가 절정에 이르렀으며, 백성들에 대한 관료사회의 탐학도 심했다. 이처럼 정치적 혼탁과 경제적으로 토지집중이 심화되고, 대규모 유민이 발생하여 사회체계가 더욱 혼란해졌다. 그 결과로 농민과 특정 계층의 반란이 일어났다.

명 중심 국제질서에서 중심국가인 명 국내의 통치질서가 붕괴되면서 대외적으로 정치, 외교, 군사적 영향력이 급속하게 줄어들었다. 명의 구심력이 약화되면서 주변 영역의 원심력이 강화되어 몽골, 여진, 일본 등의 독자적인 발전이 이어졌다. 먼저 요동과 만주 지역을 살펴보면, 遼東邊疆을 중심으로 명의 영향력이 후퇴하면서 여진족은 점진적으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했다. 16세기 중후반 海西女眞의 哈達(Hada), 輝發(Hoifa), 烏拉(Ula), 葉赫(Yehe) 등과 建洲女眞의 忬都里(Odoli) 등 5개의 강력한 부족이 등장했다.⁵⁶⁾ 이들 부족들은 결국 건주여진을 통합한 누르하치와 해서여진을 대표하는 부잔타이(布占泰)의 대립으로 이어졌다.

56) 서병국, 『선조시대 여진교섭사 연구』, 교문사, 1970.

두만강 유역에 인접한 부잔타이는 조선의 藩胡를 조선에서 이탈 시키고자 하여 조선과 충돌했다. 그 일환으로 조선의 기존 여진족과의 전쟁에 대한 인식을 크게 변화시키는 변란이 1583년 1월부터 7월 까지 일어났다. 이른바 "니탕개의 난"이다. 수백 내지 수천 명의 침범병력을 뛰어넘어 최대 3만 명의 병력이 동원되면서 조선은 국방의 국지전 수준을 넘어 조선의 총역량을 동원하여 대응하였다.⁵⁷⁾ 이이의 병제개편을 불러올 정도로 니탕개의 난은 조선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럼에도 니탕개의 난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여진족과의 전쟁은 대규모 전쟁이 아닌 변란으로 인식했다. 이러한 인식은 후금의 침입으로 인한 정묘호란, 청의 침입으로 인한 병자호란에 대응하였던 조선의 인식과 전쟁준비를 예상할 수 있다.

이처럼 여진족과의 전쟁을 변란으로 인식하였듯이 왜구의 침입으로 인식한 일본과의 전쟁은 여전히 지속되어 임진전쟁의 준비 역시 동일하게 분석할 수 있다. 임진전쟁의 경우, 조선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크게 주목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미 명은 만력연간에 명 중심 국제질서의 중심국으로서 통제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주변국뿐 아니라 국경지역에서 발생하는 군사충돌을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흔히 萬曆三大征이라 불리는 임진전쟁은 명의 입장에서 파병이 불가능하지만 명 중심 국제질서의 황제국이 행해야하는 역할론으로 인해 파병한 것이다.⁵⁸⁾

16세기의 명은 명 중심 국제질서의 중재자이자 중심국가로서의

57) 송우혜, 「조선 선조조의 니탕개란 연구」, 『역사비평』72, 2005; 민덕기, 「임진왜란 직전 조선의 국방 인식과 대응에 대한 재검토 : 동북방 여진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57, 2010; 윤호량, 「선조 16년(1583) `尼湯介의 亂`과 조선의 대응」, 『군사』82, 2012; 민덕기, 「이율곡의 십만양병설은 임진왜란용이 될 수 없다 : 동북방의 여진 정세와 관련하여」, 『한일관계사연구』41, 2012; 박정민, 「임진왜란과 여진인 `來朝`의 종언」, 『만주연구』18, 2014; 한성주, 「임진왜란 전후 女眞 藩胡의 朝鮮 침구 양상과 조선의 대응 분석」, 『동양사학연구』132, 2015; 金世容, 「宣祖朝 尼湯介亂 研究」, 成均館大博士學位論文, 2016.

58) 김경록, 「명대 監軍제도와 임진왜란시 파병 明軍의 監軍」, 『동양사학연구』137, 2016; 「정유재란기 파병 명군의 구성과 조명연합군」, 『한일관계사연구』57, 2017.

역할을 수행하기에 통제력이 급격하게 저하되었다. 이는 내부적인 통치질서의 이완, 대외적인 몽골, 왜구에 대한 군사적 대응의 실패에 기인하며, 명은 적극적인 대외 군사정책보다 장성을 구축하고, 북경방어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극적인 군사정책을 펼쳤다. 명의 통제력 밖에 존재하였던 몽골, 여진족의 세력확장으로 이어졌으며, 결국 만주족에 의한 후금의 건국과 명청전쟁으로 이어졌다. 또한, 왜구에 대한 방어적인 군사정책은 전통적인 해금정책과 연결되었으며, 일본에 대한 통제력 부재를 반영했다. 내부적으로 전국시대를 종식하고, 통일을 달성한 일본에 의한 임진전쟁 발발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국제정세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된 명 중심 국제질서 속에서 조명관계에 중점을 둔 조선은 선조대 북쪽으로 니탕개의 난, 남쪽으로 임진전쟁이란 전쟁을 경험하면서 광해군대 국제정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5. 맺음말

이상과 같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국가가 직면하는 전쟁은 해당 침략국과 자국의 관계뿐만 아니라 국제정세에 큰 영향을 받아 발생한다. 특히 국제정세는 해당 시기의 국제질서를 운영하는 중심국가의 통제력 여부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조선의 경우, 명 중심 국제질서에서 명나라, 청 중심 국제질서에서 청나라의 국제사회에 대한 통제력 정도에 의해 주변국과 군사충돌 및 평화를 공유했다. 조선전기 동아시아 국제정세는 원 중심 국제질서가 붕괴되고 명 중심 국제질서가 성립되어 명의 국제사회에 대한 통제력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았다.

다원적인 국제질서하에서 격랑의 시대에 고려는 국운을 좌우할 전

쟁을 여러 차례 겪으면서 고려의 역량을 총동원하면서도 국제정세 변화를 활용하여 전략적 외교관계를 맺어 대응했다. 요, 금과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송이란 대안을 활용하였지만, 대륙에서 절대 강국이 등장하여 원 중심 국제질서가 성립되면 이에 편입되어 여원관계를 맺었다. 이와는 달리 조선은 건국이후 명 중심 국제질서를 중시하여 외교, 군사적 대안을 무시하였다. 물론 이는 조선이 현실적으로 북방에서 침입하는 외부세력을 여진족으로 한정하는 이점이 있었고, 조선은 북방의 전쟁대상으로 조선의 통제가 가능한 여진족을 상대하였기에 대외정벌 보다 국경안정의 관점에서 토벌을 필요시 시행했다.

조선전기 명 중심 국제질서는 원명교체기에서 15세기 중엽까지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15세기 중엽이후 몽골의 침입으로 인한 토목보의 변으로 대변되는 군사적 무능력을 노출하면서 국제정세에 미치는 통제력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자체적인 군사개혁을 비롯한 혁신의 노력으로 여전히 명 중심 국제질서를 유지하며 황제국으로서 지위를 유지했다. 이 시기에 조선은 몽골의 흥기에 따른 여진족의 남하와 변방침입을 경험하고 회유와 정벌의 대응을 시행했다.

16세기에 접어들면서 명의 내부적 통치질서의 문란, 군사력 저하는 명 중심 국제질서의 해체과정으로 이끌었다. 명은 경술의 변을 경험하고 더욱 몽골침입에 대비하여 북경방어체제를 강화하고, 장성을 통한 소극적인 군사정책을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명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지역의 세력은 확장을 거듭하여 명 중심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왜구는 동북아 정세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조선과 명 연안을 침범했으며, 조선은 명 중심 국제질서에서 공동의 적으로 왜구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시행하여 대마도정벌을 단행했다. 대마도정벌이후 일정하게 왜구의 침범이 줄어들었지만, 대외적으로 조선과의 관계를 단절하기 어려웠던 일본은 삼포의 개방이후에도 이익관계에 따라

삼포왜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지속적인 왜구와 왜관을 중심으로 한 일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군사충돌은 조선이 일본을 군사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인식을 남겼으며, 이는 임진전쟁에 대한 조선의 소홀한 준비를 가져왔다.

북방 여진족의 움직임은 조여진관계 속에서 파악함으로써 동북아 국제정세를 간과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니탕개의 난을 경험하면서 조선은 여진에 대한 군사대응을 재인식하고 새로운 군사체제와 군역제도를 가져왔지만, 건국이후 지속적으로 여진관계를 군사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인식이 남아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의 큰 충격을 경험하게 되었다.

(원고투고일 : 2019. 1. 11, 심사수정일 : 2019. 2. 1, 게재확정일 : 2019. 2. 15)

주제어 : 국제정세, 전쟁, 조선전기, 명청교체, 명 중심 국제질서, 여진정벌, 대마도정벌, 삼포왜란, 니탕개난, 임진전쟁, 병자호란

<참 고 문 헌>

사료

『조선태조실록』, 『조선정종실록』, 『조선태종실록』, 『조선세종실록』, 『조선세조실록』, 『조선중종실록』, 『조선명종실록』, 『조선선조실록』, 『조선연산군일기』, 『조선인조실록』, 『명태조실록』, 『명태종실록』, 『명선종실록』, 『명세종실록』, 『명영종실록』, 『二十二史劄記』

단행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임진왜란사』, 1987.
서병국, 『선조시대 여진교섭사 연구』, 교문사, 1970.
육군군사연구소, 『한국군사사』7, 육군본부, 2012.
이형석, 『임진전란사』(상·중·하), 임진전란사간행위원회, 1976.
정두희, 이경순 엮음, 『임진왜란과 동아시아 삼국전쟁』, 휴머니스트, 2007.
정혜은, 『한국전통병서의 이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최영희 외, 『임진왜란의 재조명』, 국사편찬위원회, 1992.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
한성주, 『조선시대 변호 연구』, 경인문화사, 2018.
한성주, 『조선전기 수직여진인 연구』, 경인문화사, 2011.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연구논문

강성문, 「朝鮮시대 女眞征伐에 관한 연구」, 『軍史』18,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1989.
김경록, 「공민왕대 국제정세와 대외관계의 전개양상」, 『역사와 현실』64, 2007. UCI:G704-000054.2007..64.009
김경록, 「명대 監軍제도와 임진왜란시 과병 明軍의 監軍」, 『동양사학연구』 137, 2016, DOI:10.17856/jahs.2016.12.137.51
김경록, 「명대 공문제도와 행이체계」, 『명청사연구』26, 2006, DOI:10.31329/JMHS.2006.10.26.123
김경록, 「명대 驛傳제도와 한중관계에서 符驗의 의미 - 홍무연간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49, 2018. DOI:10.31329/JMHS.2018.04.49.1

- 김경록, 「명초 홍무제의 국가통치 구상과 대명률」, 『법사학연구』53, 2016, UCI:G704-001302.2016..53.002
- 김경록, 「명초 홍무제의 군사인식과 군사정책」, 『군사』99, 2016. UCI:G704-001528.2016..99.005
- 김경록, 「명초 홍무제의 종교정책과 통치구상」, 『명청사연구』46, 2016. DOI:10.31329/JMHS.2016.10.46.171
- 김경록, 「여말선초 홍무제의 고려·조선 인식과 외교관계」, 『명청사연구』35, 2011. DOI:10.31329/JMHS.2011.04.35.1
- 김경록, 「정유재란기 파병 명군의 구성과 조명연합군」, 『한일관계사연구』57, 2017. DOI:10.18496/kjhr.2017.08.57.123
- 김경록, 「조선시대 국제질서와 해양정책」, 『명청사연구』48, 2017. DOI:10.31329/JMHS.2017.10.48.185
- 김경록, 「조선초기 국제정세와 국방정책」, 『군사연구』146, 2018
- 김경록, 「조선초기 군인송환문제와 조명간 군사외교」, 『군사』83, 2012. UCI:G704-001528.2012..83.006
- 김경록, 「조선초기 귀화정책과 조명관계」, 『역사와 현실』83, 2012. UCI:G704-000054.2012..83.003
- 김경록, 「홍무연간 명의 봉진 정비와 조명관계」, 『중국사연구』106, 2017. UCI:G704-000580.2017..106.007
- 김경록, 「홍무제의 대외인식과 조공제도의 정비」, 『명청사연구』37, 2012. DOI:10.31329/JMHS.2012.04.37.1
- 김구진, 「조선시대 女眞에 대한 정책」, 『白山學報』88, 2010.
- 김세용, 「宣祖朝 尼湯介亂 研究」, 成均館大博士學位論文, 2016.
- 김영진, 「전통 동아시아 국제질서 개념으로서 조공체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정치외교사논총』38, 2016. DOI:10.18206/kapdh.38.1.201608.249
- 金正義, 「홍건적의 침입에 관한 고찰」, 『군사』17, 1988.
- 민덕기, 「이울곡의 십만양병설은 임진왜란용이 될 수 없다: 동북방의 여진 정세와 관련하여」, 『한일관계사연구』41, 2012. UCI:G704-001395.2012..41.006
- 민덕기, 「임진왜란 직전 조선의 국방 인식과 대응에 대한 재검토: 동북방 여진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57, 2010. UCI : G704-001545.2010..57.001

- 민덕기, 「임진왜란기 조선의 북방 여진족에 대한 위기의식과 대응책-‘南倭北虜’란 측면에서」, 『한일관계사연구』34, 2009. UCI:G704-001395.2009..34.002
- 閔賢九, 「高麗 恭愍王代 중엽의 정치적 변동」, 『진단학보』107, 2009. UCI:G704-000336.2009..107.006
- 박정민, 「임진왜란과 여진인 ‘來朝’의 종언」, 『만주연구』18, 2014. UCI:G704-SER000010200.2014..18.002
- 박진훈, 「고려 후기 흥건적의 침입과 安祐의 군사활동」, 『사학연구』130, 2018. DOI:10.31218/TRKH.2018.06.130.97
- 송우혜, 「조선 선조조의 니탕개란 연구」, 『역사비평』72, 2005. UCI:G704-000293.2005..72.003
- 윤영인, 「전근대 동아시아 천하체제와 조공체제」, 『동양문화연구』29, 2018.
- 윤호량, 「선조 16년(1583) `尼湯介의 亂`과 조선의 대응」, 『군사』82, 2012. DOI:10.29212/mh.2012..82.41
- 이경희, 「고려말 흥건적의 침입과 안동임시수도의 대응」, 『역사와경계』24, 1993
- 이여,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왜구」, 『한일관계사연구』36, 2010. UCI:G704-001395.2010..36.006
- 이영, 「전환기의 동아시아 사회와 왜구 - 경인년 이후의 왜구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123, 2003. UCI:G704-000361.2003..123.010
- 이익주, 「14세기 후반 고려-원 관계의 연구」, 『동북아역사논총』53, 2016. UCI:G704-002002.2016..53.016
- 이정란, 「1361년 흥건적의 침입과 공민왕의 충청지역 피난정치」, 『지방사와 지방문화』21-1, 2018.
- 임상훈, 「흥무제, 명대 환관 외교의 창시자 - 흥무제의 환관 억제와 그 실체」, 『동양사학연구』129, 2014. UCI:G704-000250.2014..129.008
- 장정수, 「16세기 말~17세기 초 朝鮮과 建州女眞의 배후 교섭과 申忠一의 역할」, 『한국인물사연구』25, 2016. UCI:G704-002031.2016..25.004
- 장정수, 「선조대 對女眞 방어전략의 변화 과정과 의미」, 『조선시대사학보』67, 2013. UCI:G704-000303.2013..67.004
- 장정수, 「선조대 말 여진 번호 로툰(老土)의 건주여진 귀부와 조선의 대응」, 『조선시대사학보』78, 2016. UCI:G704-000303.2016..78.001

- 전순동, 「명조 전기 환관 세력의 추이와 기능」, 『중국사연구』61, 2009.
UCI:G704-000580.2009..61.010
- 정다함, 「征伐이라는 戰爭/征伐이라는 祭祀—世宗代己亥年“東征”과 婆猪江“野人征伐”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52, 2013. UCI:G704-000690.2013..52.006
- 정해은, 「16세기 동아시아 속의 조선과 <國朝征討錄>의 편찬」, 『장서각』29, 2013. UCI:G704-001808.2013..29.005
- 최희재, 「중화제국질서’를 둘러싼 논의의 확산과 수렴 —조공체제론과 다중체제설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65, 2018
- 한성주, 「임진왜란 전후 女眞 藩胡의 朝鮮 침구 양상과 조선의 대응 분석」, 『동양사학연구』132, 2015. DOI:10.17856/jahs.2015.09.132.101
- 홍영의, 「이방실 장군의 생애와 군사활동」, 『군사』103, 2017.
DOI:10.29212/mh.2017..103.279

해외연구논저

- Fairbank, J. K. "A Preliminary Framework." Fairbank(ed.) The Chinese World Order.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 Walker, Hugh D. "The Yi-Ming Rapprochement: Sino-Korean Foreign Relations, 1392-1592" Ph.D.diss.,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1971
- 高橋公明, 「朝鮮外交秩序と東アジア海域の交流」, 『歴史學研究』573, 1987
- 南快莫德格, 「论瓦剌蒙古与西域社會」, 『中国民族学类核心期刊』2005-2
- 董玉瑛, 「明正統末景泰初女眞的動亂」, 『史學集刊』1983-4
- 滕紹箴, 「试论明与后金战争的原因及其性质」, 『民族研究』1980-5
- 李龙潜, 「明正統年间广东黄肖养的起义」, 『理论与实践』1959-11
- 李龙潜, 「明正統年间叶宗留邓茂七起义的经过及特点」, 『历史教学』1957-3
- 万泳延, 「明代麓川治理问题研究」, 中央民族大学博士学位论文, 2013
- 濱下武志, 『近代中國の國際的契機: 朝貢貿易システムと近代アヅア』東京大學出版部, 1990
- 濱下武志, 『朝貢システムと近代アヅア』岩波書店, 1997
- 孫衛國, 「論明初的宦官外交」, 『南開學報』1994-2

- 王正毅, 『世界體系論與中國』 商務印書館, 2000
- 于贵信, 「關於葉宗留鄧茂七起義的幾個問題」, 『史學集刊』1956-1
- 李龍潛, 「明正統年間葉宗留鄧茂七起義的經過及特點」, 『歷史教學』1957-3
- 李雲泉, 『明清朝貢制度研究』 暨南大學博士學位論文, 2003
- 郑鎮峰, 「明正統年間“三征麓川”之役」, 『歷史教學』1963-8
- 趙現海, 『明代九邊長城軍鎮史』, 中國社會科學院青年學者文庫 歷史考古研究系列, 2012
- 中國軍事科學院, 『中國軍事通史』第15卷-明代軍事史, 軍事科學出版社, 1998
- 中國軍事通史編委會, 『中國軍事通史15-明代軍事史 上冊』, 軍事科學出版社, 1995
- 陈玉彬, 「明朝中期(1442年-1450年)的处州农民起义」, 『丽水师专学报』1982-1
- 陳濟時, 「明代正統一天啓年間主要農民起義圖」, 『歷史教學』1981-5
- 何鵬毓, 「明正統年間东南地区的农民大起义」, 『新史學通訊』1951-10
- 哈恩忠, 霍华, 「后金“告天七大恨”榜文」, 『历史档案』2012-2
- 華實, 「“土木之變”與土木堡」, 『文史知識』1983-2
- 荒野泰典, 『近世日本と東アジア』, 東京大出版會, 1988
- 黃枝連, 『天朝禮治體系研究』(上·中·下),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2

<Abstract>

International Situation and War in Northeast Asia during early period of Joseon

Kim, Kyeoung Lok

In a country, war and peace are both contradictory and very closely related concepts as well. Joseon, which inherited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turmoil as a historical heritage at the end of the Goryeo, was established in 1392 and influenced by the international situation of changing Ming from Yuan(元明交替). Under the pluralistic international order, Goryeo had many times of war to influence the national destiny, and while taking full advantage of Goryeo's capabilities, it made strategic diplomatic relations by utilizing the change of international situation. However, after the founding, Joseon focused on the Ming central international order(明中心 國際秩序) and ignored diplomatic and military alternatives. Of course, this has the advantage of limiting the external forces that invade Joseon from the North. Since Joseon dealt with the ruling class of North, it was punished in terms of border security.

In the early days of the founding, Joseon faced internal confusion in the face of changes in international affairs, which were replaced by the Ming from the Yuan, as well as domestic political and military complexity. In addition, Joseon has implemented a fierce defense policy to secure security in the Ming central international order. During the peace period, Joseon could implement long-term and systematic defense policies, but the national policy, which was the national policy for the war, changed due to the initial confusion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n early Joseon period, the international situation was the decline of Mongolia, a northern n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Ming Dynasty. In this process, the international situation changed suddenly due to the North Yuan forces of the Liaodong, the Mongol forces in the grassland, the Ruzhen in the nor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have caused frequent military conflicts around Joseon, resulting in massive wars. As a result, the Joseon changes in the defense policy and experience the Campaign against the Jurchen tribesmen(女眞征伐), Tsushima Subjugation(對馬島征伐), Japanese Riots in the Three Ports(三浦倭亂), Nitanggae Invasion(尼湯介亂), Imjin war(壬辰戰爭), Manchu War in 1636(丙子胡亂).

Key words : International Situation(국제정세), War(전쟁), Early Joseon period(朝鮮前期), Changing Ming from Yuan(明清交替), Ming central international order(明 中心 國際秩序), Campaign against the Jurchen tribesmen(女眞征伐), Tsushima Subjugation(對馬島征伐), Japanese Riots in the Three Ports(三浦倭亂), Nitanggae Invasion(尼湯介亂), Imjin war(壬辰戰爭), Manchu War in 1636(丙子胡亂)